

Joseph: Resisting the Pitfalls at the Pinnacle
요셉: 가장 높은 자리에서 위협에 저항하다 (창세기 41:42-57)

Temptations that come from the World

This is now our seventh in our series that began in Genesis 37 looking at the beginnings of the family of Jacob. Apart from chapter 38 detailing Judah’s corruption & redemption … the story has largely centred on events surrounding the young adult life of Joseph. …We began with Joseph being the favoured 17 year old son of Jacob…& then through his brothers’ wickedness, sold into slavery in Egypt. Though Joseph distinguished himself & rose in authority…the Lord in His sovereignty made the majority of those 13 years to be a time of testing & trial … through that time Joseph grew in character & remained faithful to the Lord.

Last week we saw Joseph go from pit to Prime-Minister. Again Joseph testified to the Lord’s work in honing his character as he gave God the glory before Pharaoh as the One who revealed the meaning of the dreams & determined the future.

This week, now that Joseph is at the pinnacle of power in Egypt (2nd only to Pharaoh) we see him resist the pitfalls that tempted him to worldliness & continue to remain faithful to the Lord so he could be the Saviour that God had raised him up to be. It’s another great word of encouragement for us about resisting the world & honouring the Lord.

We’re in a spiritual war against the world, the flesh & the devil…all three conspire to drag us down – to delight in us falling from grace in the sense of worldly compromise. 1 Peter 5:8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How can we be secure? How can we resist falling into worldliness…what is our defence? The word before us today – as we see how Joseph resisted & in particular how he points us to our Lord Jesus.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시작한 설교 시리즈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37장부터 야곱의 가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8장에서 나타난 유다의 부패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야기는 젊은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을 보았고, 그리고는 그의 형제들의 악행 가운데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 갑니다. 비록 요셉이 특출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3년이란 시간 동안 요셉은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 가운데 그의 성품은 성장하였고, 주님께 계속해서 신실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감옥 밑바닥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께서 그의 성품을 어떻게 다듬으셨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세상의 위협을 저항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하고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저항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용기를 돋워 줍니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기억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우리의 육신, 그리고 사탄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우리를 끌어 내리려 하며, 세상 가운데 타협하게 함으로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며, 어떻게 세상에 빠지는 것을 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어책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저항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합니다.

The Pull on Joseph at the Pinnacle (42-45)

v42, 'Then Pharaoh took his signet ring from his hand and put it on Joseph's hand, and clothed him in garments of fine linen and put a gold chain about his neck. And he made him ride in his second chariot. And they called out before him, "Bow the knee!" Thus he set him over all the land of Egypt.'

One morning, Joseph was in prison ... the next moment he found himself elevated to Pharaoh's presence. Now after successfully interpreting Pharaoh's dreams ... his power is second only to Pharaoh...as shown by Pharaoh's gesture with his ring. The signet ring was the ancient sign of authority...to function in a similar way to our signatures today` [Image 1]

The linen, gold chain, second chariot & command of deferential posture of bowing were all part of the ceremony to install Joseph...with Pharaoh's final word of induction to Joseph, V44, "I am Pharaoh, and without your consent no one shall lift up hand or foot in all the land of Egypt."

Whenever we experience the blessing of earthly prosperity – whether it be financial, a work promotion, health, relationships or any other good thing the Lord may provide...we must keep them in perspective...lest we grow proud thinking our situation is by our own efforts rather than God's grace.

The great danger for us spiritually is not always at its greatest in the trials...but often in the heights of success...to become like the world*...We see for Joseph the danger as Pharaoh sought to make him as an Egyptian...V45, '(And) Pharaoh called Joseph's name Zaphenath-paneah. And he gave him in marriage Asenath, the daughter of Potiphara priest of On. So Joseph went out over the land of Egypt.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을 끌어 내리려는 것.

42~43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앞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의 꿈을 잘 해석한 뒤에, 그는 이집트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의 인장 반지를 받게 됨이 이런 사실의 증표입니다. 여기서 "인장 반지"라는 것은 권위의 증표였으며, 오늘날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지 1)...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모든 사람에게 요셉에게 앞드리라 말함은, 요셉이 큰 권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44절에서 확증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새번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 축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부, 승진, 건강, 좋은 대인 관계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거만하지 않기 위해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보다는 성공 가운데 있을 때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려 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45절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넛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넛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새번역)

Pharaoh's Egyptian name for Joseph meant "God speaks & lives." It shows the impact that God had made on Pharaoh through Joseph.....but we also see the pull from Pharaoh on Joseph in giving him the daughter of Potiphera, priest of On in marriage. She wasn't just an Egyptian woman ... Nor was she simply from the ruling class...she was from the pinnacle of pagan spiritual power in Egypt...Her name, Asenath...bore witness to this as well ... to mean, 'she who belongs to the goddess Neit'... Egyptians believed that the idol, Neit was the creator & sustainer of everything.

Her father, Potiphera was the priest in the city 16 km NW of Cairo called, 'On' from the Egyptian meaning 'abode of the sun' [Slide 4]...aka Heliopolis in Gk (Sun City)... because it was the centre of worship of the Egyptian sun-god 'Re'. His name - as for Joseph's old master meant 'dedicated' to this idol.

What we are left wondering is with so much power & Pharaoh's clear goal of Joseph's Egyptianisation...how could Joseph possibly remain faithful?

KH: "Joseph's soul was in greater peril than at any other time in his short life. It is one thing to remain believing and God-centred and faithful in the pit; it is quite another to be faithful at the pinnacle. The pit instilled dependence upon God ... the pinnacle of Egyptian life inclined the soul toward pride and independence. At the top, looking up to God was not so natural. It was far easier then for Joseph to look down on humanity and to depend upon servants to meet his needs...the fact that Joseph's name, speech, clothing and wife were Egyptian all encouraged him to forget where he came from...But Joseph responded well..."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살아계신다."입니다. 이는 요셉을 통해 바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는 문제는 바로가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며, 지도층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장 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런 사실을 또한 잘 반영합니다. 아스낫이라는 이름은 "네이트 여신에게 속한 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네이트가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통치자로 믿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보디베라는 카이로 북서쪽으로 16km 거리에 있는 "온"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이었고, 이 도시의 이름은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4)...이런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 도시가 이집트 태양신인 "레"를 숭배하는 곳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려 할 때,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신실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KH 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영혼은 그 짧은 인생 중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과 인생의 정점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만, 인생의 정점에서는 우리는 거만하며,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위에 있을 때 요셉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보며 그 아래 있던 사람들을 통해 그의 필요를 충족함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이름 또한 이집트 이름으로 바뀌고, 이집트 옷을 입으며, 그의 아내가 이집트 사람이었을 때, 그의 주변 환경은 모두 하나님을 잊도록 유혹합니다...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요셉이 매우 잘 반응함을 보게 됩니다..."

How Joseph Resisted the Pitfalls (46-57)

• Faithfulness in the Years of Fruitfulness (46-52)

V46, 'Joseph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entered the service of Pharaoh king of Egypt. And Joseph went through all the land of Egypt. During the seven plentiful years the earth produced abundantly, and he gathered up all the food of these seven years, which occurred in the land of Egypt, and put the food in the cities. He put in every city the food from the fields around it. And Joseph stored up grain in great abundance, like the sand of the sea, until he ceased to measure it, for it could not be measured.'

Here's where we find out the length of Joseph's trials from the time his brothers threw him into the wilderness pit to the time he got out of the prison pit...13 years! It was a long time languishing...but in God's providence it was to be his preparation for his role as saviour. He went through all the land & did as God's wisdom motivated him to do - store up the grain - so much that it was immeasurable. The character that the Lord had forged in the furnace of earthly trials now meant faithfulness in this time of power & plenty...

Joseph's interpretation of the God-inspired dreams of Pharaoh became the Word of God...Joseph was faithful to the Word by storing up grain during the plentiful years. Though Joseph had power & privilege...gathering grain by way of a 20% tax wouldn't have won him popularity...but he remained true to God & by courage & conviction didn't compromise during the years of plenty.

Following Jesus is not a recipe for adulation in the world's eyes either ... in a world that finds comfort in conformity to the popular norms ... that alone can be a catalyst to compromise. We dare not try to fit our faith into the so-called polite society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opposed to God's truth ...

요셉이 이런 유혹을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46~57)

46~49절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일곱 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구절에서 요셉이 서른 살 나이에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다 말씀할 때, 그가 정작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란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일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었고,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 시키셨고, 이제 이런 단련으로 그가 권위에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을 신실히 행하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곡식을 저장합니다. 비록 요셉이 총리의 권능과 특권이 있었을지라도, 세금으로 20%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그는 용기와 확신 가운데,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계속 수행해 나아갑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부터 환대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이 세상의 안목에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God calls us to be faithful in the details of life...particularly when we sense that it might mean missing out on the power that can come from the praise of others. what we say to our non-believing family & friends about any number of issues becomes God's testing of our character - whether we'll stand firm on the convictions of our conscience or bow to the world's ways...We need wisdom, courage & grace to stand by our convictions when the world is against us ... To not compromise on the true definition of marriage, to oppose indoctrination of gender fluidity...abortion & euthanasia.

Joseph distinguished himself in such a culture...because he maintained a humble view of himself & an exalted view of God...that we particularly see from V50, 'Before the year of famine came, two sons were born to Joseph. Asenath, the daughter of Potiphara priest of On, bore them to him. Joseph called the name of the firstborn Manasseh. "For," he said,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hardship and all my father's house."

It would have been tempting for Joseph to have given his sons Egyptian names...it would have brought greater acceptance within the society & made it that much easier for him. But Joseph maintained his godly character - 'Manasseh,' comes from the verb that means 'to forget' Joseph's firstborn was a tangible reminder of the Lord's grace that made the bad memories over the past 13 years disappear. What a wonderful picture of God's grace!

There may have been numerous tragic or evil events from our pasts or even horrid sinful moments of which we've been guilty that we wish would never have happened... we wish we could forget. God's grace in Christ has the power to help us reframe all such moments...that they would be neither burdensome nor bitter any more, but rather moments under God's sovereign hand by which He has brought His saving & sanctifying grace into our lives!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신실하길 바라십니다. 특별히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일지라도...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나 가족에게 무언가를 말함에 있어, 그저 세상적 관점을 따라 말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을 시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 관점의 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와 안락사를 반대하며, 성경적 신념에 따라 말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런 문화 가운데서도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관점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점을 높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사실을 50~5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분명 요셉은 그의 자녀에게 이집트 이름을 주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회에서 더 융화되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경건한 성품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는다는 동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난 13년 동안의 고생을 사라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참혹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거를 보며 우리는 이를 그저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과거의 쓰라린 마음과 과거의 짐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구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V52, 'The name of the second he called Ephraim, "For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affliction.'"

Again, it's a testimony of Joseph's faith in God's grace... 'Ephraim' comes from the Hebrew verb that means to bear fruit. In the land of his greatest trials...the Lord blessed Joseph with two sons to show he was multiplying his descendants.

Joseph remained faithful under testing because he remembered he was where he was...& was who he was... solely by the sovereign will of God. He remained faithful under blessing because he trusted the fact that everything that happened was by the gracious hand of the Lord.

The Lord calls us to such remembrance that we would similarly as Paul said in 2 Th 5:18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Times of prosperity have unique temptations - to think that we're self-sufficient - in pride to think that our hard work...our intelligence...our abilities...our connections are what will see us through. When we fall into such patterns, we lose our first love who is our Lord. The warning is to give thanks & keep giving thanks to God as He provides & resist the pull of the world to compromise by maintaining loyalty to Christ.

• Faithfulness in the Years of Famine (53-57)

v53, 'The seven years of plenty that occurred in the land of Egypt came to an end, and the seven years of famine began to come, as Joseph had said.'

The coming seven of famine Joseph had interpreted would be as sure as his word that saw the seven years of plenty completed...Now the text brings us to the whole point of why the Lord had placed Joseph to be where he was at that particular time... V54b ... 'There was famine in all the lands, but in all the land of Egypt there was bread.'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구절을 통해 다시한번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요셉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열매를 맺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겪었던 땡에서, 주님은 두 아들과 함께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기에, 그는 시험 가운데도 신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축복 가운데서도 그가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받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형통할 때 올수 있는 유혹은, 우리 스스로 자족할수 있다 생각하며, 자만심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능력과 인맥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첫사랑이신 주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 동안에 신실함.

53~54절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7년의 풍년뒤 7년의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54절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There was hope in Egypt because of God’s sovereignty to ensure that His servant would be faithful through the years of plenty.

V55, ‘When all the land of Egypt was famished, the people cried to Pharaoh for bread. Pharaoh said to all the Egyptians, “Go to Joseph. What he says to you, do.”

So when the famine had spread over all the land, Joseph opened all the storehouses and sold to the Egyptians, for the famine was severe in the land of Egypt. Moreover all the earth came to Egypt to Joseph to buy grain,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over all the earth.’ ~ 250 years earlier – in Genesis 22:18 the Lord promised Abraham that in his “offspring shall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be blessed.”

Joseph was a particular fulfilment that the Lord was bringing about in relation to that promise to Joseph’s great-grandfather...that here, through Joseph ... by his faithfulness that had continued to resist the pull of the world & had instead impacted Pharaoh we find the king telling his subjects to go to the only one with the wisdom & authority to save them. Because Joseph had been faithful in fruitfulness just as he’d been faithful in the famine ... He was the only one who could save the starving population.

Coming to the One who grew in Favour without Compromise

Though Joseph is exemplary & we learn from his example...the only power we have to resist the lure of the world & flourish in faithfulness to impact the world is because of the One to whom Joseph points us...

As a young man He also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ur with God and man.” His favour among men was without compromise to God. He also entered formal service at 30

By His suffering God completed His faithfulness. In contrast to Joseph...By Jesus’ immortal life He remains faithful to all who come to Him –

He is the only Saviour who has the power & authority to save us from death...

He alone gives us new life...because He is the bread of life...the spiritual food who nourishes us without cost...in Him all nations are being blessed

John 6:35 & 40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종인 요셉이 신실하였기에, 먹을 것은 풍족하였고, 이런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을 때,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인들에게 곡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땅으로 퍼져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50년 전쯤에 주님께서는 창세기 22:18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러한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뤄짐을 보게 됩니다...이런 흉년과 기근 속에서 신실히 자기 일을 수행한 요셉 덕분에, 굶어 죽을수 있는 수많은 인구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모범적이고 우리는 그의 본모기를 통해 배우지만... 우리가 세상 유혹에 저항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요셉이 우리에게 가리킨 사람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리킨 이분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분이며, 요셉과 같이 30살 나이 때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을 마치셨습니다. 요셉과 달리 그의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할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그는 생명의 떡으로, 오직 구분만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며, 우리에게 값없이 영적 음식을 먹이심으로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35 &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